

◆ 북미

- Fitch, 미국 손해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발표
- 미국, 도시계획 정도가 10대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미국, 독립대리점 임금상승률 감소

◆ 유럽

- Datamonitor, '영국의 방카슈랑스 2007' 발표
- 2008년 1월,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회사의 주요 움직임

◆ 일본

- 아사히생명, 계약유지 업무에 영업수당제도 도입
- 일본 알리안츠생명, 방카슈랑스 주문형 변액연금 출시
- 일본 생명보험시장 외국계의 활발한 진출

◆ 중국

- 중국생명(中國人壽), 순익증가 일등공신은 '자산운용수익'
- 중국, 보험 텔레마케팅 시장 신용위기 직면
- 중국건강보험시장, 2015년 1,200억 위안 규모로 확대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Fitch, 미국 손해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발표

- 신용평가기관인 Fitch에 따르면 2007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순이익과 보험영업이익에서의 성과는 2006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년간은 거대자연재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보험영업이익이 양호하였으며 지급준비금 조절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었음.
 - Fitch는 앞으로도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료 인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2008년에도 양호한 보험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2008년 총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보험사들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1~12%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Fitch는 그들이 평가하는 상장 보험사들의 GAAP 자료 및 SEC에 제출된 기업 연례운영보고서 10-K 등을 토대로 2007년 손해보험산업 실적을 추정하였음.
 - 50개 대상기업의 순이익은 2007년 10.2% 감소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006년 16.3%에 비해 하락한 13.2%를 기록하였음.
 - 지급준비금 적립 수준은 2007년에도 양호하였으며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인해 합산비율이 2.1% 정도 감소한 것으로 Fitch는 추정함.
 - CY(calendar year)기준 손해보험사들의 합산비율은 89.3%를 나타냈고 AY(accident year)기준으로는 90% 미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6년 각각 84.7%, 85.5%에 비해 증가한 것임.

(Business Wire, 3/26)

□ 미국, 도시계획 정도가 10대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재개발 지역 등이 체계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스프롤(sprawl) 현상이 10대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Matthew Trowbridge 박사는 연구를 통해 스프롤 현상은 어른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10대 운전자들의 운행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현재까지 성인들의 교통사고율 문제에 스프롤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바 있지만 10대들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 그는 미국에서 한해 2,500명의 10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10대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성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률의 4~8배에 달하며 따라서 10대 운전자들의 운행거리를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10대들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Trowbridge 박사는 각 지역별로 스프롤 현상의 정도를 측정하고 10대 운전자의 평균 운행 거리와 기타 특성들을 조사하였으며 4,528명의 설문 응답자 중 52%가 운전을 하고 있으며 25%는 하루에 20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 스프롤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계획이 잘된 도시에 비해 하루 20마일 이상 운전하는 10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어리고 운전경력이 짧은 10대 운전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음.
- Trowbridge 교수는 스프롤 현상이 10대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Insurance Journal, 3/21)

□ 미국, 독립대리점 임금상승률 감소

- Insurance Journal은 독립대리점 시스템에서의 직원수와 임금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750개의 독립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한 대리점은 2006년에 비해 적었으며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임금 인상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독립대리점 및 중개사 협회의 Madelyn Flannagan은 시장이 전환기에 있는 경우는 임금이나 보너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녀는 또한 최근의 임금 하락은 전반적인 경기하락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험산업이 연성시장(soft market)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임금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안정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을 뿐 고객의 수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설문에 따르면 54.5%의 독립대리점은 직원수를 작년과 같이 유지하였으며 29.7%는 직원수를 늘렸고 16%는 직원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8.7%가 2008년에도 현재와 같은 직원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34.6%는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함.
-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49.6%의 독립대리점들이 2007년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에 가까운 31%는 임금을 인상하였고 19.4%는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남.
- 직군별로는 지점장(Agency manager)의 37.4%는 임금이 동결되었으며 평균임금은 2.9% 인상되었고, 영업직원(Sales staff)은 40.9%가 임금이 동결되었으며 평균임금상승률은 2.7%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관리직원(Support staff)은 가장 높은 평균 3.2%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냈고 4%이상 임금이 증가한 경우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Journal, 3/25)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Datamonitor, ‘영국의 방카슈랑스 2007’ 발표

- Datamonitor는 최근 조사연구자료 ‘영국의 방카슈랑스 2007’을 발표하였는데, 영국의 방카슈랑스는 고객과의 관계구축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생명보험 영역에서 성장이 진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타 판매채널에 비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생명보험은 최근 3개년(2004~2006)간 성장이 양호하여 평균 11.6%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수한 생명보험료는 최근 5개년간 연평균성장률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이 생명보험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둔 해였으나 방카슈랑스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17.7%를 보이며 전년도의 19.9%에서 축소되었음.
- 연금시장에서도 방카슈랑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2006년 5개년 간 총 연금보험료는 평균 11.6% 증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하였던 2003년을 제외하면 성장폭이 생명보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연금시장은 보험료 성장률이 50%에 달하였지만,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료는 2003년과 2004년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채널의 급격한 회복세로 크게 감소하였고,
 - 200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6.8%를 기록하여 2002년의 7.3%에 비해 낮아진 모습을 보임.
 - 소비자들이 SIPP(개인투자연금) 상품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IFA 채널이 동 시장을 지배하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Datamonitor, 3/20)

□ 2008년 1월,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회사의 주요 움직임

- Datamonitor는 'Life & Pension Competitor Tracker(2008.1)'를 통해 2008년 1월 글로벌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회사의 주요 M&A 및 상품혁신, 고객타겟팅 전략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M&A 및 전략적 제휴 사례는 아래와 같이 추진됨.
 - 네덜란드 : Delta Lloyd의 Swiss Life Belgium 인수 동의(M&A)
 - 이탈리아 : Aviva의 UBI Vita 인수(M&A)
 - 영국 : Legal & General와 Cofunds의 제휴확대(Partnership)
 - 미국 : Lincoln과 Level Four Group의 제휴(Partnership)
- 글로벌 성장 사례는 아래와 같이 추진되었음.
 - 한국 : Aviva의 한국 생명보험시장 진입(Aviva그룹이 우리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IG생명 지분의 91.7%를 인수)
 - 중국 : Manulife-Sinochem는 3개 지역(Zhigong, Qingdao, Nantong)에 대한 추가 영업승인을 받아 중국 내 총 29개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신흥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력을 전개
 - 인도네시아 : Manulife Indonesia, Pekanbaru에 30명의 대리인과 직원이 상주하는 신규 사무소 개설
- 상품혁신과 관련하여, Allianz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사로는 첫 번째로 이슬람 마이크로보험 상품인 'Payung Keluarga'를 판매하였는데, 동 상품의 판매에 앞서 18개월의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음.
 - 알리안츠는 동 시장에서 'Takaful'로 불리는 이슬람 회교도를 위한 보험 상품 판매를 2006년부터 개시하여 왔음.
- 한편 Aviva는 인도에서 새로운 펀드옵션인 Index fund, Enhancer fund, Bond fund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Prudential Financial은 PruLife 유니버설 플러스 상품에 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상품을 정비하고 강화시킴.

(Datamonitor, 3/20)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아사히생명, 계약유지 업무에 영업수당제도 도입

- 아사히(朝日)생명보험은 지난 28일 보험계약자에게 컨설팅 등 애프터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함.
- 아사히생명은 영업직원이 보험계약자에 다가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친절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유지율을 개선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아사히생명은 방문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가 있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개선 수당」을 도입하였으며 명의 변경이나 보험금 청구신청,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 등을 실시한 영업직 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수당은 업무내용에 따라 1건당 200~400엔을 지급함.
- 또한, 고객을 방문한 회수나 활동내용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도 록 제도를 개정하고 동 포인트를 기초로 영업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동시에 영업직원의 컨설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8개 지사에 전문 담 당자를 배치하고, 입사 3~5년차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대응 단계별 준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 아사히생명은 “사업의 핵심인 영업직원 채널을 고급화하고, 경쟁이 격화 되는 생명보험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설명함.

(FujiSankei Business I, 3/29)

□ 일본 알리안츠생명, 방카슈랑스 주문형 변액연금 출시

- 일본에서 영업을 시작한 알리안츠생명보험은 26일 일시납 변액연금보험 「알리안츠 NK」를 4월 1일부터 닛코증권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발표함.
 - 동 회사는 3월 7일 금융청으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일본 생명보험시장에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하게 됨.
 - 알리안츠의 미야케이지 사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변액연금보험을 금융 기관대리점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일본 戰後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니즈가 높은 변액연금의 판매를 시작으로 미래에는 의료보험 등 폭넓은 상품을 갖추 생각임을 밝힘.
 - 신상품은 거치 기간 중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원금·사망급부금의 최저보 증액이 바뀌며 최저 보증액은 일시납 보험료의 110%에서 150%의 범위 내에서 5%단위로 변동함.
- 미야케이지 사장은 알리안츠 NK에 대해 “일본의 투자가가 리스크와 리턴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개발한 상품이다”라고 설명하고, 戰後세대로부터의 인기에 자신을 나타냄.
 - 알리안츠 NK는 닛코증권을 위한 주문형 상품이지만, 향후 은행이나 타 증권회사로 상품공급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생각임.
 - 다만, 미래 상품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리안츠는 “독일이나 세계에서 경험 을 기초로 일본시장에 적절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쳐 구체적인 상품이나 판매시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함.
 - 독일계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는 손해보험사업을 하는 알리안츠화재해상보 험이 이미 영업 중에 있어 이번에 새롭게 생명보험사업 진출함으로서 일 본에서의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3/27)

□ 일본 생명보험시장 외국계의 활발한 진출

- 프랑스 기업인 크레디·아그리콜이 작년 11월 일본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 외에, 독일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6일 변액연금 등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시장에 외국계 등의 신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음.
- AEGON 등도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며 이는 방카슈랑스 허용과 우체국보험 민영화로 본체의 직접적인 비용이나 영업망을 가지지 않아도 상품을 팔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기 때문임.
- 4월부터 닛코증권을 통해 변액연금을 판매하는 세계 제2위의 알리안츠사는 대형 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의 방카슈랑스 진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불신감이 높아져, 초저금리의 일본은 시장진출의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음.
- 일본시장에 진출한 크레디·아그리콜은 리소나은행과 제휴하여 방카슈랑스를 시작하였음.
- 향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AXA나 AEGON도 각각 일본의 SBI나 소니생명과 파트너를 맺어 민영화된 우체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戦後세대를 타깃으로 변액연금 등을 판매할 방침임.
- 일본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일본의 변액연금시장은 2007년 4~12월의 신계약 건수가 업계 전체에서 약 46만 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만 건 이상 줄어드는 등 부진한 상황임.
- 또한 작년 12월 방카슈랑스 판매 전면허용으로 대규모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취급이 가능해진 의료나 암 등의 제3보험 상품의 매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운용능력이나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는 외국계의 진출이 방카슈랑스 등 생명보험상품의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성화 시킬지 주목 받고 있음.

(마이니치신문, 3/26)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생명(中國人壽), 순익증가 일등공신은 ‘자산운용수익’

- 지난 3월 26일 중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中國人壽)의 결산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결산 결과 중국생명은 2007년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투자수익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 중국생명은 그동안 확보해 놓았던 우량회사 주식의 상당부분을 지난 해 하반기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자산 운용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5%나 증가하였음.
- 결산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 중국생명이 실현한 순이익 규모는 2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증가하면서 주당수익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회사의 총자산 투자수익은 846억 위안('06년 대비 79.8% 증가)으로 수익률 11.1%를 기록하였음. 또한 영업수익은 2,813억 위안으로 '06년 대비 23.3% 증가했으며, 총자산은 8,946억 위안으로 '06년 대비 23.0% 증가함.
- 반면, 2007년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1,966억 위안으로 '06년 대비 12.5% 증가하면서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 말 중국생명의 시장점유율은 39.7%로 상반기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생명의 하반기 시장점유율 하락은 중국정부의 투자수익 배당방법에 대한 규정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신상품 개발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보장형 위주의 단일상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에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중국증권보, 3/21)

□ 중국, 보험 텔레마케팅 시장 신용위기 직면

- 최근 중국에서는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이나 방카슈랑스 판매방식에 비해 판매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콜센터를 설립,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에 치중하고 있음.
 - 동 추세에 따라 텔레마케팅 거수보험료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일부 예측기관에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판매 성장률이 연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 보감위는 금년 1월 이후에만 평안손보(平安財險), 따띠손보(大地財險) 등 6개 보험사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허가함과 동시에 텔레마케팅 전용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정식 인가함.
 - 또한, 타이핑양보험(太平洋保險), 화타이손보(華泰財險) 등이 텔레마케팅 자격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신화보험(新華保險), AIU 등 대형 보험회사는 기존의 콜센터를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과열의 부작용으로 불만접수도 크게 늘었으며, 중국의 보험 텔레마케팅 시장은 훈련되지 않은 텔레마케터, 내부규범 미비, 부당판매 등으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신용위기’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중국 보감위는 금년 1월과 2월에 상하이 지역에서만 132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는데, 불만 내용은 대부분 텔레마케터의 과대과장, 실제와 다른 상품설명, 가입은 쉽지만 해약은 어려운 문제 등을 경험했다는 것임.
- 제도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보감위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텔레마케팅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증권시보, 3/27)

□ 중국건강보험시장, 2015년 1,200억 위안 규모로 확대

- 유럽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DKV(독일)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는 2015년에 건강보험 시장이 1,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는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시장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됨.
- 중국 건강보험 시장은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으로 600억 위안의 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하면서 1,200억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DKV에 따르면 중국 건강보험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 같은 예측의 근거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의 건강의식 제고이며, 2015년이 되면 국내총생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있음.
- DKV는 10년전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외자건강보험회사이며, 지난 2004년 중국인민보험그룹과 함께 중국 최초의 건강보험회사인 중국인민건강보험유한공사(DKV측 지분19%)를 설립하였음.
 - 중국인민건강보험유한공사는 2007년 26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0억 위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말 현재 약 8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의 18개 분공사를 연말까지 3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중국경제시보, 3/28)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3.14(금)	08.3.21(금)	08.3.28(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25	5.18	5.17	-0.01
	美 10년국채	4.03	3.44	3.33*	3.44	+0.11
	英 10년국채	4.51	4.33	4.29	4.41	+0.12
	日 10년국채	1.51	1.27	1.28	1.28	+0.00
주가	韓 KOSPI	1,897.13	1,600.26	1,645.69	1,701.83	+3.41%
	韓 KOSDAQ	704.23	617.71	615.93	636.67	+3.37%
	美 DJIA	13,264.82	11,951.09	12,361.32*	12,216.40	-1.17%
	美 Nasdaq	2,652.28	2,212.49	2,258.11*	2,261.18	+0.14%
	英 FTSE	6,456.90	5,631.70	5,495.20*	5,692.90	+3.60%
	獨 DAX	8,067.32	6,451.90	6,319.99*	6,561.76	+3.83%
	佛 CAC40	5,614.08	4,592.15	4,533.72*	4,695.92	+3.58%
	日 Nikkei225	15,307.78	12,241.60	12,482.57	12,820.47	+2.71%
	中 상해종합	5,261.56	3,962.67	3,796.58	3,580.15	-5.70%
	대만 가권	8,506.28	8,161.39	8,524.99	8,623.48	+1.16%
	홍콩항생	27,812.65	22,237.11	21,108.22*	23,285.95	+10.32%
환율	원/달러	938.20	980.50	1,013.90	993.00	-20.90
	원/100엔	833.33	974.75	1,023.31	997.59	-25.72
	엔/달러	112.58	100.59	99.08	99.54	+0.46
	달러/유로	1.4722	1.5617	1.5454	1.5809	+0.0355
	위안/달러	7.3041	7.0904	7.0525	7.0109	-0.0416

주 : *는 3/20 기준임.